

‘대기오염 조작’ 여수산단 90개 사업장 4년 만에 실태조사

2년간 26억 투입 조사 연구용역

대기·해양 수질·토양 등 분석

조사 결과 따라 환경개선 대책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이 드러난 지 4년 만에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실태조사 계획에는 주민 보상 방안이 빠져 있고,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뒤 조사를 진행하는 터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여수시는 지난 1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26억원이 들어가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여수국가산단 301개 사업장 가운데 지난 2019년 대기오염 자가측정기록부 조작이 들 통한 90곳이다. 이들 기업은 실태조사를 위해 전남도가 산정한 비용 26억원을 부담한다.

실태조사는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 기록을 계기로 지난 2019년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 가운데 하나이다.

여수시는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 지역의 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여수시는 오염 저감을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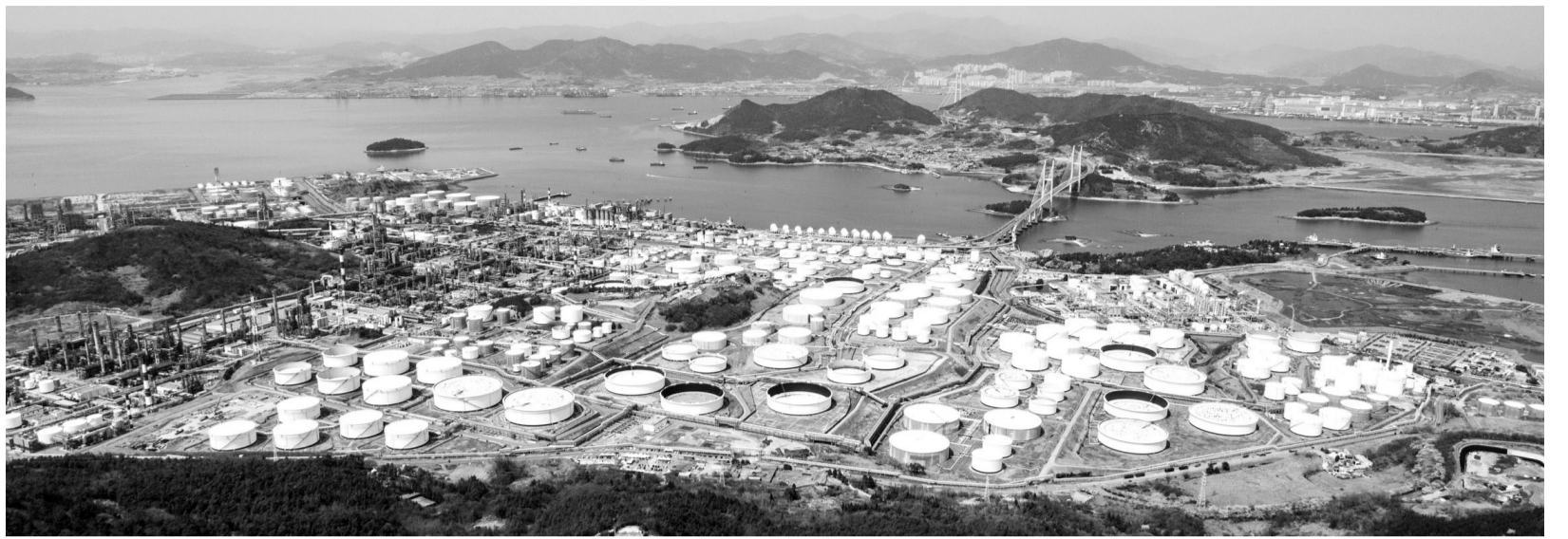
실태조사는 전남녹색환경센터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와 연구 수행한다.

용역기관은 여수산단 주변 지역 기초현황을 조사하고, 환경관리 사례 검토, 대기오염·약취·(해양) 수질·토양 성분 분석 등을 한다.

이날 용역 착수 보고회에는 여수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전문위원회, 여수산단 90개 사업장,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개선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여수산단 일부 기업의 대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9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벌인다. 여수국가산단 전경.

〈여수시 제공〉

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거짓 기록 사건으로 인해 지역 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8명, 지역 의원,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같은 해 출범해 활

동해왔다. 강용주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주무관은 “여수산단 조성 이후 주민 건강 피해에 따른 환경관리 개선 요구가 지속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하

게 됐다”며 “이번 조사가 여수산단의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에 큰 동력이 되고 체계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 장군도, 겨울 철새 민물가마우지 배설물 몸살

나무 말라죽는 백화현상 심화

여수시 기피제 살포·경보기 설치

여수의 명소 장군도가 겨울 철새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여수시는 민물가마우지배설물로 인한 장군도 섬 숲 백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지난해 2월 여수국가산업단지 외 해안가에 나타나면서 양식장과 공단지역에 배설물 피해를 주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중앙동 장군도에 나타나 배설물로 인한 나무·석축이 하얗게 오염되는 백화 현상이 일어났다.

장군도는 이순신공원과 돌산공원을 마주 보는 섬이다.

여수시는 장군공원을 찾아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민물가마우지는 국제자연보존연맹의 보호종이지만 환경부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입힌 28개 지자체의 권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오는 3월 15일부터는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할 수 있다.

여수시는 드론을 활용해 친환경 조류 기피제를 살포하고 30곳에 스마트 경보기를 이달 말까지 설



겨울 철새 민물가마우지 때가 여수시 중앙동 장군도에 머무르면서 새 배설물로 인한 백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여수시 제공〉

치한다.

경관을 보호하고 섬 수목 고사를 막기 위해 배설물 피해지를 청소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천적인 매·올빼미 등이 없어지면서 민

물가마우지 개체 수가 급증했다”며 “배설물 피해뿐 아니라 양식장의 물고기 잡아먹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가마우지 피해 대응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청년 부부 결혼식 비용 100만원 지원

예식일 전후 30일 이내 신청

고흥군이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부부 결혼식 비용 지원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한 49세 이하 부부(생애 1회 지원)이다.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고흥지역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라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결혼

식을 한 부부에게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예식일 전후 30일 안에 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부부의 소중한 첫 출발을 응원하고,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밀 빵을 만드는 사람들’ 창립...골목 빵집 상권 활성화 나섰다

지역 제빵사 11명으로 구성

구례 도시 골목 빵집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례밀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최근 창립총회를 열었다.

구례군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구례밀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역 제빵사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5일 구례읍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 내용을 논의했다.

주민과 협력해 각종 행사를 열어 구례에서 생산된 우리 밀을 홍보하고 ‘빵지 순례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대 회장인 이은하씨는 “수입 밀가루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구례밀로, 구례만의 건강빵을 만들어 낸다면 구례의 큰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역량 있는 제빵사들이 만든 구례밀 빵은 구례를 알리는 효과 상품이 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우리 밀의 주산지, 전국 생산



구례지역 제빵사 11명으로 구성된 ‘구례밀 빵을 만드는 사람들’ 창립총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량의 18%, 전남 생산량의 49%가 구례에서 생산된다. 광의면에는 우리밀 공장이 있고, 구례 전역에는 우리 밀 빵집 14곳이 영업 중이다. 구례군은

밀 생산 농가 소득 증대와 제과·제빵산업 육성을 위해 구례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을 ‘구례밀’로 홍보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20일부터 생산 출하

1.5 l 12개 단위포장 7만원 판매

광양시는 20일부터 백운산 고로쇠 수액의 채취와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고로쇠 수액 가격은 용량 500ml, 30개 단위 포장 7만원, 용량 1.5 l, 12개 단위포장 7만원에 판매된다.

4.5 l, 4개 포장 7만원이며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영농조합과 각 읍면동 농협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청정지역 백운산 고로쇠나무에서 채취된다.

배에 좋다고 해 ‘골리수’라고 불리는 고로쇠 수액은 미네랄,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하며 칼다공

증 개선 효과가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시는 고품질 고로쇠 수액 생산과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채취 호스, 집수통, 정제시설 등 위생 상태를 사전 점검했으며, 정제 과정을 거친 수액만을 시중에 유통 판매한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소포장(500ml) 용기를 도입했으며, 용기에 정제 일자 등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고로쇠 수액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로쇠 수액의 본격 생산·판매에 따라 임업인들의 수익 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순천시는 올해 18~45세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 5개 분야 102개에 418억57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열린 순천 청년포럼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 을 102개 청년정책 418억 투입

일자리 지원 늘리고 문화카드 증액

청년 공동체 등록제 처음 시행

순천시는 올해 청년 문화복지카드 금액을 올리고 ‘청년 공동체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청년 정책 사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시 청년 정책 5개년(2023~2027) 기본계획을 세우고 청년(18~45세)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는 5개 분야 102개 청년 정책 사업에 418억 5700만원을 투입한다. 순천시 17개의 부서가 협업해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 정책 사업은 ▲참여·교육 분야 11개 사업 11억6200만원 ▲복지 분야 44개 사업 179억 9300만원 ▲일자리분야 38개 사업 109억8100만원 ▲주거 분야 9개 사업 117억2200만원 등으로 나뉜다.

순천시는 지난 3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 ‘창업연당’을 시 직영 운영으로 전환한다.

이곳에서는 청년 CEO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창업스쿨, 맞춤 컨설팅, 창업캠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는 41억9400만원 예산을 들여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지역경

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K-디즈니 순천’ 조성에 동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년 설문조사를 진행한 순천시는 결과를 반영해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상담 기능을 확장할 방침이다.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를 취업연결고리 공간으로 재단장한다.

청년복지 사업으로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내일저축계좌, 전남 청년 디딤돌 통장사업 등이 있다.

문화복지카드 지원금은 20만원에서 올해 25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순천시는 올해 청년 공동체 등록제를 처음 시행한다. 청년 공동체와 단체 50여 개 팀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 프리랜서를 ‘1845순천청년인재풀’에 등록해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계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K-디즈니 순천’ 등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 산업을 다양화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